

내게 맞는 보험상품, 낮은 수수료로 가입한다 삼성증권 '비대면 방카슈랑스' 시스템 구축

삼성증권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방카슈랑스' 시스템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앰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청약해 입금까지 완료할 수 있다.

설계사의 빈자리는 '상품비교' 메뉴가 대신한다.

'상품비교' 메뉴를 활용하면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 보험 등 자신의 목적에 맞는 보험 종류를 고른 후 해당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절차도 4단계로 간소화했다.

'상품비교' 단계가 끝나면 '예상수령액 확인' '필요정보 입력' '보험료 입금' 등 3단계만 거치면 가입이 완료된다.

가입 이후 사후관리는 원터치로 가능하다.

삼성증권 '비대면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삼성증권 지점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형의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사업비용(계약체결비용, 관리비용 등)을 24%가량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상품 40세 남성 가입, 10년 납부 후 60세 연금 개시 기준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거래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다양한 보험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면서도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5년 시작된 온라인 방카슈랑스의 월납금액(초회보험료 기준)은 2016년 5억 원에서 2017년 20억 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의 80% 이상이 핀테크 활용률이 높은 30~40대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